

배포 2026. 6. 4.(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4.(목) 12:00  
(지면) 2026. 6. 5.(금) 조간

## 미래의 민간 외교관 찾기! 2026년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 참가하세요

- 교육부와 엘지(LG)가 함께 이중언어(한국어, 모국어) 실력을 갖추고 미래의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이주배경학생을 발굴해 시상
- 17개 시도에서 예선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1월에 개최될 전국 대회 참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18일(금)까지 시도교육청 지역 예선을 통해 「제14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의 본선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17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예선을 시행해 본선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 예선인 지역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이주배경학생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6월 중 지역대회 일정을 안내할 예정으로, 시도별로 지역대회 일정이 다르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내하는 지역대회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학생을 9월 18일(금)까지 추천하면, 교육부가 10월 2일(금) 본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 ※ '25년 예선 878명 참여, 본선 54명(초등 25명, 중등 29명)이 총 18개 언어\*로 참여
- \* 광둥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벵골어, 스페인어, 싱할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타지크어, 텔루구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본선인 전국 대회는 11월 14일(토) 엘지(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 **국립국제교육원장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상을 수여하고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 추가로 다문화학교 우수프로그램, 특수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의 강점과 자긍심을 키우고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8년부터는 엘지(LG)와 협약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대회는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영어 제외)를 사용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예선·본선 동일) 이번 대회의 발표주제는 ‘자아, 문화, 경험, 사람’\*으로, 학생들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발표하면 된다. 초등부는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로 각 3분씩 발표하고, 중등부는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로 각 2분씩 발표한 뒤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로 2분씩 진행되는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 (자아) ‘나’에 대한 이야기, (문화)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경험)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를 배운 경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제고하여, 학생들이 여러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4회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요  
 2.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 원고(초등)  
 3.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 원고(중등)  
 4.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현장 사진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과장	나현주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박지애 (044-203-6197)
			교육연구사	강영민 (044-203-6195)
			교육연구사	류향승 (044-203-6611)

□ 추진목적

-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주배경 학생의 강점을 키우고 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학교 및 한국사회 적응 지원
-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제고하여 다양한 언어 및 문화를 배우며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환경 조성

□ 대회 개요

- (일시) 2026. 11. 14. (토) 09:00 ~ 17:00
- (장소)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 (주최/주관) 교육부·LG / 국립국제교육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의국어대학교

□ 세부 내용

- (운영영역) 초등부(초등학교 1~6학년) / 중등부(중·고등학생)
- (참가) 초·중·고(대안학교 포함) 재학 이주배경학생 중 시도대회 선발 59명 내외
  - \* 지역대회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기본 추천 가능 인원 외 지역별 추가 인원 배정 예정으로 전국대회 참여학생 수는 변경 가능
- (발표방법) 4가지 주제\* 중 1가지 주제로 한국어로 발표 후, 동일한 내용을 영어를 제외한 부모 모국어로 발표하고 대회 당일 심사 및 시상
  - \* (자아) ‘나’에 대한 이야기, (문화)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경험)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를 배운 경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 시상 규모

구분	수상인원		상장	부상
	초등부	중등부		
대상	1	1	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50만원
금상	2	2	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40만원
은상	5	5	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30만원
동상	7	7	교육부장관상	문화상품권 20만원
특별상	4	2	국립국제교육원장상	문화상품권 20만원
특별상	7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문화상품권 20만원
특별상	6	6	한국의국어대학교총장상	문화상품권 20만원
합계	32	27		

지역	부산	학교명	광남초등학교	이름	슈레스타 몬달(MONDAL SHRESTHA)
한국어			벙골어		
제목	"나의 삶, 나의 꿈"			আমর জরিন, আমর স্বপ্ন	
<p>여러분, 안녕하세요.</p> <p>제 이름은 슈레스타 몬달입니다. 저는 8살이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p> <p>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와도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뿌리와 가족이 인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두 개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의 모국, 그리고 인도는 저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p> <p>이제 저의 꿈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p> <p>제 꿈은 세계 최고의 소아외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픈 아이들, 특히 말을 못하는 아기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기들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느낌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그런 아기들의 아픔을 말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p> <p>저는 아픈 아기들을 치료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한 아이들,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는 어린 생명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를 모두 위해 일할 것입니다. - 종락 -</p>				<p>সবাইকে আমার আন্তরিক শুভেচ্ছা।</p> <p>আমার নাম শ্রেষ্ঠ মণ্ডল। আমি ৮ বছর বয়সী, এবং বর্তমানে দক্ষিণ কোরিয়ায় বসবাস করছি। আজ আমি আপনাদের সঙ্গে আমার স্বপ্ন সম্পর্কে কথা বলতে চাই।</p> <p>আমি কোরিয়াতেই জন্মগ্রহণ করেছি এবং এখনো কোরিয়াতেই বাস করছি। আমি এই দেশটিকে খুব ভালোবাসি। কিন্তু, একই সঙ্গে আমার হৃদয়ের সঙ্গে ভারতের গভীর একটি সংযোগ রয়েছে। কেননা আমার শিকড় ও পরিবারের উৎস ভারতের মধ্যেই নিহিত। সেই কারণে, আমার হৃদয়ে দুটি দেশই আমার নিজের বলে মনে হয়—কোরিয়া আমার মাতৃভূমি, আর ভারত আমার দ্বিতীয় জন্মভূমি।</p> <p>এবার আমি আপনাদের সঙ্গে আমার স্বপ্নের কথা শেয়ার করতে চাই। আমার স্বপ্ন হলো, একদিন বিশ্বের সেরা শিশুশল্য চিকিৎসক (পেডিয়াট্রিক সার্জন) হওয়া। আমি অসুস্থ শিশুদের বিশেষত সেই সব ছোট্ট শিশুদের সাহায্য করতে চাই, যারা কথা বলতে পারে না। তারা ব্যথা পাচ্ছে কি না, কোথায় কষ্ট হচ্ছে—তা ভাষায় প্রকাশ করতে পারে না। এটা আমাকে খুব কষ্ট দেয়। আমি এমন একজন চিকিৎসক হতে চাই, যিনি এই শিশুদের ব্যথা ও কষ্ট কথা ছাড়াও অনুভব করতে পারেন।</p> <p>আমি অসুস্থ শিশুদের আরোগ্য লাভে সহায়তা করতে চাই। আমি দুর্বল শিশুদের যাদের পক্ষে নিজেরাই সেরে ওঠা সম্ভব নয়, তাদের পাশে থাকতে চাই। আমি কোরিয়া এবং ভারত—এই দুই দেশেই কাজ করতে চাই। এবং একদিন আমি সারা বিশ্বের শিশুদের জন্যও কাজ করতে চাই। - 종락 -</p>	

지역	대구	학교명	이곡중학교	이름	김하루
한국어			중국어		
제목	한국에 온 첫날			韩国时的故事	
<p>안녕하세요! 저는 이곡중학교 김하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왔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p> <p>벌써 한국에서 4년이나 살면서 한국어도 많이 늘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생각나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그날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p> <p>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걸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항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니, 간판들이 전부 처음 보는 낯선 글자! 한글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나 정말 한국에 왔구나!' 싶었죠.</p> <p>인천공항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먹은 간식이 생각나요. 바로 자판기에서 뽑은 칠성사이다예요!                      기차를 타고 본 창밖 풍경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논밭이 정돈된 줄처럼 펼쳐지고, 도시와 마을이 차분하게 이어지는데, 어딘가 단정하고 조용한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보던 풍경과는 많이 달라서 창밖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 종락 -</p>				<p>大家好！我是梨谷中学的金哈露。                      今天我想跟大家分享一下，我第一次来韩国时的故事。</p> <p>不知不觉，我已经在韩国生活了四年，韩语也进步了不少，学校生活也适应得很好。                      不过有时候走在路上，我会突然想起，“我刚来韩国的那一天”。</p> <p>那么，现在就请跟我一起回到我小学三年级的那一年——2021年，开始一段小小的时间旅行吧！                      刚下飞机的时候，其实我还没什么实感。                      “我真的来到了另一个国家吗？”脑子里还在晃神。                      但是一走出机场，看到满街的招牌全都是陌生的文字——韩文的时候，                      那一刻我才真切地感受到：“啊，我真的来到了韩国！”</p> <p>从仁川机场到大邱还要坐火车。等火车的时候，我还记得我在韩国吃的第一个零食。                      你猜是什么？                      就是从自动贩卖机买的七星汽水！                      坐上火车，透过窗户往外看，沿路的风景特别让我印象深刻。                      田野像被仔细梳理过一样整齐地铺展开来，城市与乡村之间静静地延续着，                      给人一种井然有序、安静祥和的感觉。                      跟我在中国看到的风景很不一样。                      我当时就那样看着窗外，发了好一会儿呆。종락</p>	



참가자 단체 사진



참가자 사진



초등 발표



중등 발표



초등부 시상



중등부 시상